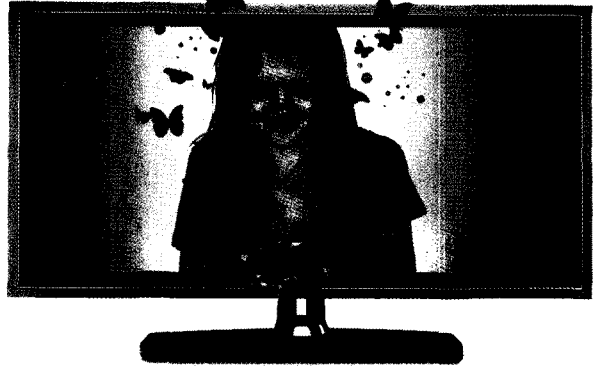


스마트TV포럼

박찬업 스마트TV포럼 사무국장, 한국스마트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1. 머리말

2010년은 아이폰으로 촉발된 스마트폰 물결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전 산업에 스마트화 바람을 일으킨 한 해였다. 이러한 스마트화 물결은, 다른 어떤 산업 분야 보다도 TV 및 미디어시장에 먼저 도착했다. 스마트폰산업에서 iOS, 안드로이드로 스마트폰 생태계를 장악하였던 애플 및 구글이, 애플TV, 구글TV를 런칭하며, 세계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기업(삼성전자, LG전자)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것이다.

애플 및 구글 등 플랫폼 우위 기업에 밀려, 단순 하드웨어 생산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스마트폰업계의 전례를, 스마트TV 분야에서는 되풀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관련 업계에 팽배하였다. 이에,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 연구기관, 학계 및 관련 업체 전문가들이 모여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며 논의하게 되었고, '스마트TV포럼'이 창립되게 되었다.

2. 스마트TV포럼 창립

TV시장이 스마트TV로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TV시장 1위를 점유(2010년, 삼성 : 22.3%-1위, LG : 13.5%-2위)하고 있던 TV세트업체에도 위협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내 비즈니스로 한정되어 있던 미디어 산업(방송, 통신, 콘텐츠 등)에도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플랫폼 경쟁력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여 비교열위인 상태이지만 TV세트업체의 H/W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방송, 통신, 콘텐츠기업들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스마트TV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나아가 세계시장 선도를 해야한다는 것에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

스마트TV포럼은 업계 간 유대강화 및 공동사업을 통해 스마트TV시장의 조기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관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9월 7일 창립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윤부근 사장을 포럼 초대 의장으로 하여, LG전자 등 가전사, KBS, MBC, EBS, SBS 등 방송사, KT, SKB, LG U+ 등 통신사, ETRI, 전자부품연구원 등 연구소, CJ헬로비전, NHN,

알티캐스트, 금융결제원 등 30여 개 스마트TV 관련
선도기관들이 전부 참여하여, 포럼의 창립취지에 공

감해 주었고,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지원 하에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스마트TV포럼 운부근 의장



스마트TV포럼 주요 인사

〈표 1〉 스마트TV포럼 위원 명단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삼성전자	사장	운부근	의장
KT	본부장	이영철	부의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김홍남	
전자부품연구원(KETI)	원장	최평락	
LG전자	연구소장	권일근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KASH)	부회장	박찬업	사무국장
광운대학교	교수	정광수	부의장(운영위원장)
지식경제부	과장	조영신	운영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팀장	양철삼	
LG U+	상무	이영수	
SK브로드밴드	본부장	김한수	
CJ헬로비전	상무	이상용	
NHN	이사	홍은택	
KBS	단장	박선규	
MBC	국장	김성근	
EBS	본부장	김석태	
연합뉴스	상무	김창희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단장	류광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단장	이재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본부장	류영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PD	박현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PD	윤명현	
방송통신위원회 PM	PM	곽종철	
삼성전자	수석	이광기	
LG전자	상무	강배근	
KT	팀장	이우승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장	이호진	
전자부품연구원(KETI)	본부장	서경학	
알티캐스트	사장	유인형	감사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KASH)	실장	도철구	간사

※ 2011. 5월 현재

3. 스마트TV포럼 조직구성

스마트TV포럼은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광운대학교 정광수 교수)를 통하여 포럼 전반의 의사결정하며, 산하에 기술/표준분과위원회, 정책/제도분과위원회 및 서비스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표준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KETI 임태범 팀장)는 국내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산업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 기술 표준화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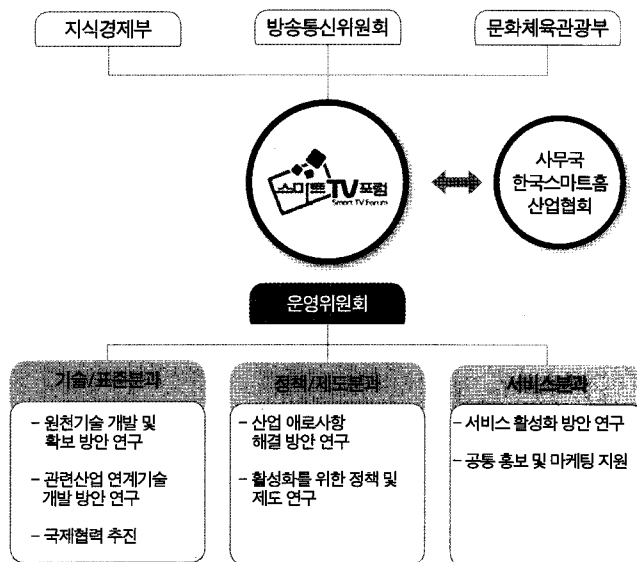
정책/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동국대학교 강재원 교수)는 스마트TV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연구 및 정부 건의, 업체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책 강구를 건의하게 된다.

서비스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ETRI 류원 부장)는 업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규 스마트TV 서비스를 발굴, 스마트TV 서비스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4. 스마트TV산업 글로벌 선도를 위해

스마트TV포럼은 발족 직후부터, 스마트TV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수립을 위해, '스마트TV산업 발전전략 기획 WG'을 별도로 운영하여,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TV 관련 3개 부처를 도와 '스마트TV산업 발전전략'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2011년 4월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스마트TV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이 3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2010년 11월에는 'Smart TV will Change Your Life!'라는 캐치프레이즈로 '2010 스마트TV 글로벌 서밋' 행사를 진행하여, 스마트TV에 관심있는 많은 국내업체 관계자들에게 국내외 스마트TV 기술 및 서비스 동향을 소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1] 스마트TV포럼 조직도

5. 맺음말

스마트TV포럼은 현재 발족한지 약 9개월 남짓으로 역사는 짧지만, 짧은 기간동안 관련부처 합동의 정부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고, 지금도 각 분과위원회별로 월 1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스마트TV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부디 좋은 결실로 이어져서, 스마트폰 생태계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